特輯 大學敎育과 國際交流

大學의 國際交流 실태와 문제점

任 永 宰
(檀國大 國際交流處長)

1. 大學의 使命

大學의 國際交流 實態와 問題點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오늘과 같이 급변하고 國際化되어 가고 있는 世界社會에서 大學에게 요청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 大學의 國際交流의 本質과 그것의 課題에 대하여 알아 보는 일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 정부, 大學人 모두가 21世紀를 눈 앞에 둔 오늘의 世界에서 人類의 未來는 文化的·科學的·技術的 發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學問的 發展은 大學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人類의 未來를 책임지고 있는 大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참으로 중차대한 것이다. 오늘의 세계에서의 大學의 역할을 1988년 유럽 大學總長들에 의해서 채택된 '大學敎育憲章'의 내용에서 요약해 보기로 하자.

1. 젊은 세대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大學의 責務는 오늘의 세계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교육시키는 일을 함축한다.

2. 大學은 미래의 세대들이 人間 간의, 그리고 人間과 自然과의 大調和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3. 大學은 편협을 거부하고 항시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수와 전달받은 지식으로 자신의 心能을 풍성하게 하려는 學生들이 만나는 理想的인 장소이다.

4. 大學은 인류 역사 이래 蘊蓄되어 온 學術·文化 傳統을 수임받은 기관으로서 항시 地理的·政治的·理念的 境界를 초월하여 보편적 지식을 획득·전수하고 각각의 異質的 文化가 서로를 理解하고 서로에게 발전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는 과업을 부하받고 있다.

5. 大學의 學問 發展을 위한 가장 긴요한 要素는 情報와 文獻의 상호 교류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한 學者의 교류이다.

요약한다면 大學의 봉사 정신, 人間 간의 그리고 人間과 自然의 調和, 學問探究의 開放性, 地理的·政治的·理念的 한계를 극복하는 通文化的 理解, 그리고 學術交流의 중요성을 천명하는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한 大學敎育의 憲章을 들추지 않고서도 우리는 '大學'을 의미하는 英語의 'university'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大學의 本質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語源的으로 분석하면 'university'는 '하나의 세계' 또는 '총체적 세계'의 뜻을 갖는 *universe*에서 파생된 단어로 *uni*는 '하나'의 뜻이고 *vers*는 '…로 돌린다', '…로 바꾼다'의 뜻을 갖는다. 요약한다면 'uni-

Versity'에는 '세계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즉, 學問과 思想 등의 總體化 내지 世界化라는 뜻이 '大學'이라는 英語 單語 속에 담겨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大學이란 知識과 眞理를 探究하는 도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열린 마음으로 모든 思想 및 理念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발전적으로 포용함은 물론 모든 異質的 要素들을 용해시켜 보다 새롭고 발전된 '하나'를 주조해 내는 용광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大學의 國際交流

世界化는 交流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大學敎育 憲章에 지적되었듯이 大學敎育의 精神 내지 基本이라고 할 수 있는 學問探究의 開放性, 地理的·政治的·理念的 한계의 극복, 學術交流는 광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大學의 國際交流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大學의 國際交流는 大學의 基本精神이고 基本機能이라고 말해서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닐 것이다.

일반적 의미의 交流란 文物 간에 내것을 他邦에 소개하여 알려 주고, 역으로 남의 것을 소개받아 배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한 交流를 통해서 我邦과 他邦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것이 交流의 궁극적 취지이고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광의의 일반적 國際交流도 '世界化'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世界化 과정으로서의 國際交流, 특히 世界가 이른바 東歐 共産政權의 變革과 開放化로 인하여, 半世紀 동안 戰爭과 冷戰의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해 주었으며 人間事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쳐 왔던 共産主義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동시에 軍事文化의 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世紀的 大變革期의 國際交流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새 질서 확립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자칫 혼돈과 갈등 속을 헤매이며 현재보다 더 악화된 힘의 질서를 배태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자신이 수십 년 동안 獨裁와 軍事文化의 힘의 질서의 암흑 속에 갇혀 있던 처지이므로 오늘과 같은 大變革期의 우리의 國際關係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國際交流의 大脈 속에서 大學의 國際交流의 본질과 그것이 떠맡아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大學의 國際交流는 전 세계의 大學敎育 機關들과 學問的 紐帶關係를 맺고 유지해 가는 과정이다. 大學의 國際交流는 政府 간의 政治·經濟·軍事同盟을 통한 세속적 交流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大學의 國際交流는 學術情報의 交流를 大本으로 삼는 學問同盟(academic alliances)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大學의 國際交流는 政府 간의 政治·經濟·軍事 등의 同盟과는 성격을 달리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大學의 國際交流는 이미 지적했듯이 지식과 진리 탐구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a single world)'를 추구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大學들이 學問的 同盟을 통해서 世界共同社會 속의 國家라는 地理的 境界뿐 아니라 理念的 境界도 허물어뜨려 번영되고 평화로운 世界를 구축하자는 것이 大學의 國際交流의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이것은 에라스무스가 人間精神의 復活은 人間敎育에 있다는 人本主義의 기치를 들고 유럽 대륙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던 16세기에도 그러했고, 한 젊은 大學生이 中國의 天安門廣場에서 거대한 專制國家權力의 상징인 진압군의 탱크와 홀홀 단신 맞서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에라스무스는 애초에는 당시 부패한 교회와 교조주의적 스콜라哲學 등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宗敎의 改革을 주창하고 나섰으나 宗敎改革運動 자체가 교조적이고 혁명적으로 변모하자, 한편으로는 루터를 비롯한 강력한 改革主義者들의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는 保守主義者들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保守主義는 물론 革命的 宗敎改革運動과 결별하고 당시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던 유럽의 여러 大學을 돌아다니며 인간이 자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투영해 갈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의 人本主義運動은 大學精神에 정면 배치되는 學問的·宗敎的 敎條主義를 극복하고 울타리 없

는 하나의 學問世界를 구축하려는 大學精神을 대표하는 것으로 大學의 國際交流의 嚆矢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天安門廣場의 젊은 大學生의 진압군 탱크와의 맞섬은 大學의 開放性과 自由精神을 질식시키려는 막강한 專制的 軍事權力으로부터 맨손으로 大學精神을 지키고 理念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려는 大學의 世界化精神과 自由精神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본다면, 大學精神의 根幹인 開放性과 自由精神은 學問의 世界化의 바탕이며 學問의 世界化 그 자체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學問의 世界化 과정이 막혀 있는 時代는 學問은 물론 文化·政治의 암흑기로서 이의 탈피를 위한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되는 파란의 시대였고, 한편 學問의 世界化가 원활히 허용되던 時代는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이 존중되는 學問的·文化的 開花期로 인간의 번영과 평화가 구가되는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學問의 世界化, 달리 표현하면 大學의 學術交流로 표현되는 大學의 開放精神과 自由精神이 수반되지 않는 大學의 探究精神은 잘못하면 學問의 국수주의와 學問의 政治權力에의 맹목적 도구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사회의 폐쇄성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에 大學 간의 學問的 交流, 즉 大學들의 文化的·技術的·知的 同盟關係는 大學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당사자들 간의 學術的 발전을 가져다 줌은 물론 국제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大學 간의 학문적 국제 교류는 學術情報와 유익한 思想 및 의견의 교환 속에서 새로운 발전적 思想과 學問을 창조함은 물론 國際關係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믿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협조와 질서의 기초를 제공해 줌으로써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촉진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순수한 성격의 大學의 國際交流가 政治 및 經濟體制를 전연 달리하는 정부 간의 관계를 순화시키고 정상 관계 수립을 위한 촉매 구실을 하는 예가 종종 있다. 理念을 달리하는 정부 간의 交流는 정부 차원에서는 접근 시도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大學의 國際交流는 學問·敎育·文化의 世界化를 추구하는 순수한 非政治的 交流이므로 어떠한 政治體制의 정부와도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스럽다. 이러한 성격의 大學間 交流가 밑거름이 될 때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 개선, 심지어는 敵性國家 간의 관계 개선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學問의 世界化를 추구하는 순수한 大學 간의 國際交流가 政治·經濟는 물론 人類의 世界化, 즉 世界平和를 촉진시키는 매개체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變革期의 大學 國際交流

오늘의 時代狀況을 살펴 보자. 현대는 中國 天安門廣場의 한 젊은 大學生의 외롭고 의로운 투쟁이 단적으로 상징하듯이 위대한 大學精神이 자유롭고 원활히 交流되지 못하고 세계 양대 진영 간의 엄청난 理念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상태에서 이 理念의 장벽이 갑자기 허물어져 가고 있는 時代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세계는 半世紀 동안 人間事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專制的 共產政權이 송두리째 붕괴되어 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軍事文化의 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渦中의 大變革期에 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半世紀 동안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 존재해 온 共產國家들에의 접근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大變革期, 특히 우리로서는 생소한 미지의 세계인 北韓을 포함한 北方國家들과의 交流라는 힘겨운 난제를 안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大學의 國際交流는 특별한 의미와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大學의 國際交流는 이미 지적했듯이 學問·敎育 및 文化의 交流를 大本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大變革期의 時代狀況하에서 大學의 國際交流는 편협과 理念의 갈등을 극복하여 軍事的 힘과 煽動方式의 낡은 질서를 깨끗이 청산하고, 多樣性의 인식하에 開放性과 自由精神에 입각한 새로운 價値體系의 확립을 위한 새 질서 수립의 精神的·理念的 그리고 理論的 바탕을 제공해 주는 성격의 交流가 되어

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世界化를 지향하는 世紀的 變化 속에서 轉換期의 현실적 갈등 극복을 위한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學術交流와 더불어 大學의 國際交流, 특히 北方交流가 떠맡아야 할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大學의 國際交流는 轉換期의 渦中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外來文物 속에서 民族的 自我를 일깨워 주고 民族的 同質性을 확인·유지시켜 줌으로써 외래 문물의 選別的 受容을 포함하여 外來文物에 대한 교통 정리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變革期에는 새로이 전개되는 地平에 대한 흥분감, 外來文物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내지 맹목적 추구에 몰입되어 개인의 自我, 더우기 民族的 自我마저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4. 大學의 國際交流 實態와 問題點

우리는 大學敎育과 大學의 國際交流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그들의 상관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고, 특히 오늘과 같은 大變革期의 大學國際交流가 떠맡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다. 이러한 성격과 중요성을 갖는 大學의 國際交流가 우리나라의 大學에서는 어떠한 實態 하에 있고,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우리 大學들은 解放 후에 설립된 지극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日淺한 역사를 가진 우리 大學들인지라 國際交流의 경험이 지극히 부족하여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國際交流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 大學들은 西方世界, 특히 美國 중심의 交流에 치우쳐 왔다. 이는 최근까지는 국가의 빈약한 경제력으로 인하여 大學의 國際交流는 물론 정부의 對外關係 자체가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受惠的인 입장에만 처해 있었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국가 경제력의 괄목할 만한 신장과 더불어 互惠的 입장에 서서 大學의 國際交流의 본격적 흐름 속에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內實 있는 大學의 國際交流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大學의 國際交流가 어느 특정 지역에 偏重함은 開放性과 多樣性의 大學精神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大學이 文化 형성의 선도적 위치에 서 있다는 점에서 볼 때, 大學 자체는 물론 國家社會 전반의 文化 偏食性向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社會는 현재 西方文化에의 偏食으로 인한 文化的 畸形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大學들도 이제 歐美大學 일변도의 交流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세계 모든 文化圈의 大學들과 交流함으로써 大學文化의 多邊化를 기하고 우리 文化의 건전한 발전과 인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세계 文化思潮의 정착에 일역을 담당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大學의 國際交流와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시 효과를 위한 國際交流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大學들이 外國 大學들, 특히 이른바 東歐圈 大學들과 交流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미 지적했듯이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大學들이 미지의 세계인 東歐圈 國家들과 접촉함으로써 우리 政府와 이들 國家와의 國交樹立에 필요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들 국가에 접근하는 우리의 교류 노력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해당 大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벌써부터 일부 大學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他大學과의 경쟁이나 學校弘報 차원에서 이들 國家 大學과의 交流를 즉흥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外國 大學과의 姉妹關係 체결에는 최소한 두 大學의 敎育 및 硏究力量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交流計劃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學術情報의 交換은 물론 學生, 硏究員, 敎授들의 訓練 및 共同硏究 등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두 大學은 물론 두 國家 간의 協助·友誼·相互理解의 분위기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大學의 國際交流가 弘報 차원의 과시적 交流로 전락되어 두 大學의 책임자가 姉妹關係 樹立 同意文書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여론의 指彈을 면치 못

함은 물론 大學精神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런데 大學이 內實 있는 효과적 國際交流를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자체의 敎育 및 硏究 시설과 내용이 충실해야 되고, 國際交流의 專門人力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國際交流를 통한 자체 敎育 및 硏究力 向上을 提高시키고 싶은 의욕이 있다 해도 만약 자체의 敎育·硏究 수준이 外國 大學과의 交流를 담당하고 소화시킬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大學의 國際交流는 공허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체 敎育 및 硏究의 質 향상과 國內 硏究機關과의 긴밀한 學際的 협조를 통한 우리 大學의 內實化가 國際交流의 견실한 토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專門人力의 확보 문제이다. 大學은 어느 기관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專門人力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최근 東歐 共產國家의 開放化로 인한 이를 國家들과의 交流에서 大學은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專門人力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交流가 일부 특정 文化圈 國家들에 편중되어 온 결과이다.

최근 交通 및 通信 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地球의 村落化가 눈 앞에 도래한 오늘의 세계에서는 세계의 모든 言語·文化圈 國家들에 대한 專門人 확보가 學問 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專門人이 부족하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직결된 무역과 외교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불가능하고 大學이 지향하는 世界化 노력도 불가능할 것이다.

國際交流 분야의 專門家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外國語 驅使能力이다. 外國語라 함은 이제는 世界語가 된 英語와 해당 文化圈 言語를 말한다. 大學이나 政府가 효과적인 國際關係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英語와 해당 言語를 文語的으로나 口語的으로 능통하게 驅使할 수 있는 人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國際 분야의 專門家는 이러한 外國語 驅使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효과적인 專門家의 구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옛날 그리이스와 로마에서 言語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야만인(barbarian)이라고 불렀던 사실은 옛날 일로 간단히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言語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의 야만인(barbarian) 취급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外國語 專門人力의 양성은 大學 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의 장기적·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눈 앞의 실리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고려된다면, 당장에 직접적 관계를 가진 外國語에만 치중되어 世界化 과정으로서의 진정한 大學敎育에 부합되는 다양한 外國語 敎育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大學의 國際交流와 관련해서 지적되어야 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이와 관련된 大學의 自由 보장 문제이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일부 大學들이 東歐圈 開放化에 따른 共產國家 大學들과 준비없이 졸속적으로 관계 수립을 서두르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여 정부 당국의 통제 내지 간섭을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大學의 國際交流는 大學의 學問探究精神의 실천 수단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學問探究 자체이다. 大學은 완전한 自律的 분위기 속에서만이 人類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創造的 學問探究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朝令暮改 식으로 이리저리 둔갑을 잘 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 어떤 제도를 내놓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날 때마다 그 제도를 뜯어 고치려는 近視眼的 정책 수립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제도가 필요하고 그 제도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그 제도에 손을 댈 것이 아니고 問題의 根源的 解決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大學의 國際交流, 특히 東歐圈 國家 大學과의 交流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大學과 더불어 검토하고 연구하여 문제점의 근원적 해결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지 사전·사후 보고 또는 허가 등의 방법으로 통제 또는 간섭을 한다면 大學의 창조적 學問活動이 위축될 뿐 아니라 장기적 국

가 이익에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당국자들이 오늘의 시점에서 大學의 國際交流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은 이에 대한 통제나 간섭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의하여 大學 스스로가 國家社會는 물론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大學精神에 부합하는 大學의 國際交流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위에 지적된 문제점들은 大學의 固有한 自淨能力에 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에 지적한 문제 이외에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大學의 國際交流는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思想·價値·傳統 등과 같은 學問的·文化的 資源은 천연 자원과는 달리 共有함으로써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고, 共有될 때만이 어떤 개별 社會는 물론 人類 전반의 평화와 번영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